

설 교

죽이지 말라/상처로 이어진다

<요한복음 20:19~23>



요코스카교회 김신아 목사

(이 설교는 2025년 8월 30일에 열린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2년 기독교인 추도 기도회」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1. 관동대지진 100주년 때 도쿄의 활동 단체 「鳳仙花/호센카」 안에 청년 그룹 「100년(백년)」이 탄생했다. 그들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만든 시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몸소 중언할 수 없다」 「우리는 죽임을 당한 당신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통설적인 말들이 새겨져 있다. 지금 그 「말」들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재일동포3세인 나는 또, 당신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름도 나이도 출신지도 확실하지 않은 분들, 그들 그녀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우리, 그런 우리가 102년이 지난 오늘, 자신 안에서 뜻밖에도 따끔거리는 피부 감각을 느끼고 있다. 몇 년 전 중오 시위(해이트 스파치)에 직면한 재일동포가 뒤틀려 외친 말 “천황 폐하 만세!!”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을까? 일본 참의원 선거 연설 청중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15엔 50전이라고 말해 봐라”라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몸에 스친 전율,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쑤시는 듯한 감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2. 여기서 「상처」를 키워드로 삼아 모세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새겨진 「불순」이라는 상처, (2) 그 상처가 전이되어 「동족을 공격한 애굽 사람」을 살해했다는 상처, (3) 망명한 곳에서 이방인과 결혼해 태어난 아이를 「계르솜(거기서 뿌리 없는 나그네)」라 작명했다는 상처, (4) 그런 복합적인 「상처」를 지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포함한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을 사는 「나」의 상처와 102년 전에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상처, 그리고 모세의 상처 사이에 어떤 연결이 가능한가?

호주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역사적 잔혹 행위에 대해 「죄」는 없지만,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 위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과 무관할 수 없으며,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역사 위에 누리고 있다는 「책임」이 있음을 “implication”(연루)라는 말로 표현했다. 우리는 오늘 날 그러한 「연루」(없었던 일로 치부되려는 존재의 목소리 없는 목소리가 던져오는 질문)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려 하고, 자신에게 혼들림과 갈등과 비난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배제하려는 마음가짐에 이르는가? 반대로 「세상에는 자신과 다른 고통이 있다」는 감각에서 「연루」에 묻혀 있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새겨진 「상처」와 이어가려 함으로써 살아가기를 지향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미국의 신학자 하워드스는 “자신 안에 이야기가 없는 자는 우연히 잡은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믿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허위 정보를 믿은 ‘평범한 사람들’이 102년 전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장애인, 도교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살해에 이르렀던 것은 권력이 유포한 <가짜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믿어버렸기 때문이었다.

102년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와서야 이야기되기 시작한 <일본인 퍼스트>라는 말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라 창출된 <한국 국적>의 어백으로 남겨진 <조선국적>이라는 존재에 대해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자유”라고 방언한 법무성 관료의 마인드에 깃들어 있던 것이었고, 1979년 끔찍한 괴롭힘으로 자살한 재일코리안 임건일(林健一)군의 사후, 괴롭힘에 가담한 중학생의 “왜냐면 조선인에게는 뭘 해도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라는 말에도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4. 살인을 저지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금지를 뜻하는 ‘로’라는 말에는 ‘할 리가 없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위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연루’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살인할 리 없다’는 말씀에 새겨진 금지와 기대의 문맥 또 부활한 것이 아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는 자신의 틀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생전의 예수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때 예수는 자신의 「상처」와 제자들의 「상처」를 이어가도록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상처와 인간의 상처가 예수의 양손을 통해 이어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타인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잡은 예수님의 다른 손끝에는 분명 102년 전 학살당한 사람들의 손이 있다고 믿는다.

<백년>의 깊은 이들의 시는 “내년에도 당신을 여기서 만나고 싶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상처와 아픔이 이어짐으로써 「만남」이 생긴다. 예수와의 만남 / 다시 만남을 통해,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KCCJ인권심포지엄 개최 「함께 사는 생명의 천막을 펼치자」

제20회 KCCJ 인권심포지엄이 9월 14~15일, 함께 사는 생명의 천막을 펼치자 ~선교 120주년을 향한 KCCJ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KCCJ회관에서 열렸다.

14일 오후 7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청일목사(KCCJ 명예관장)의 “인권심포지엄과 KCCJ의 선교”라는 제목의 기념 강연은 42명이 참여하였다.

15일에는 원근각지에서 31여명이 참석해서 오전 10시 개회예배(양영우총회장 설교)부터 RAIK 고문인 사토 노부유키씨의 “전후 80년, 재일코리안 이민의 현재”,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의 “선교 120주년을 향한 KCCJ의 현황과 미래를 생각하다”, 교육위원장 김신아목사의 “신앙의 계승과 경청의 힘”, 전국여성연합회 총무인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의 “사모”, 사회위원장 신용섭 목사의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사회선교적 과제에 관한 제언” 등의 발제가 이어졌고, 이후 1시간 정도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아라이 유키 목사 설교)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권심포지엄은 현재 총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석이 어려웠던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교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나눈 비전과 희망이 전 교회에도 전해기를 소망한다.



제4회 상임위원회 개최 제58회 정기총회 헌의안 등 심의

제57회 총회기 제4차 상임위원회가 2025년 9월 16일(화) 재일 한국기독교회관(KCC)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 24명 중 20명, 특별위원장 1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되었다. 주로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헌의안을 심의하였다. 주요 헌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前 총회 신학교와 西新井교회 간 <공동위원회> 설치의 건.
- (2)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20주년(2028년) 준비위원회 조직의 건.
- (3) 중부 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정기총회 개최일 조정)
- (4) 동경제일교회 종교법인 규칙 변경 건.(책임 역원 인원 조정)
- (5) 관동 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규칙 제4장 제11조와 제12조 부서 증감)
- (6) 교역자 퇴직 후 지원 급여금 규칙 개정의 건.
- (7) 총회 규칙 제17조 변경의 건. (규칙 17조, 관동·서남 지방회에서의 행정 지역 추가)
- (8) 목사/장로 시무 연장의 건.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헌법 제33조 제4항)
- (9) 겸임 목사에 관한 건. (헌법 제24조 목사의 초빙)
- (10) 헌법규칙 등 개정 겸토위원회에서 상정한 건.
- (11) KCC, RAIK, 서남 KCC 이사 승인 건.

장년회 일일 연수회 개최 27명이 모여 영적 힘이 더해지는 귀한 경험

9월 15일, 2025년도 서부 지방회 장년회 일일 연수회가 무코가와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나고야그레이ース트루스교회(나고야은혜와진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종하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27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예배는 서부 지방회 장년회 회장 양창희 장로(무코가와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내가 아버지(남편)입니다”(창세기 3:1~15)라는 제목으로 이종하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첫 번째 강연에서는 “나는 왜 지금 일본에 있는가”(창세기 45:8)라는 주제로, 지난 치게 걱정하거나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점심 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고린도전서 9:18~23)이라는 주제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영적인 세상을 우선시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강연 후 윤성철 장로(고베교회)의 사회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었고, 참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상적인 의문과 질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모두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영적인 힘이 더해지는 귀한 연수회였다.



(보고 : 임영자)

찬양과 말씀의 밤 개최 동경교회에 270 여명 모여 찬양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주최로 2025년 「찬양과 말씀의 밤」이 9월 21일(주) 오후 3시 30분 부터 동경교회에서, 14개 교회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시편 99: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다.

2부 「찬양의 밤」에서는 악기 연주를 곁들인 찬양과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많은 박수와 응원이 이어졌고, 감동적인 찬양이 계속되었다.

프로그램 중반에는 모리시타 시게루 목사(일본기독교단)의 재즈 피아노 특별 연주가 있었고, 힘찬 재즈연주에 모두가 매료되어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각 교회에서의 찬양이 모두 끝난 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참가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여기에 모인 우리」를 큰 목소리로 합창하였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드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올해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참가한 모든 교회에 동등하게 참가상이 수여되었다.

(보고 : 회장 이은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2년 그리스도인 추모 집회 열려

지난 2025년 8월 30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기독교인 추도 집회」를 일본기독교회관에서 가졌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의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추도기도회에는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일본 기독교의 17교단 및 단체에서 134명(그중 온라인 참가자 76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진행되었다.

설교자로서 김신야목사(요코스카교회)는 “살인하지 말라 / 상처로 이어진다”(요한복음 20:19-2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각 참가 교단 및 단체별 추도 기도 순서에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는 이은주권사(요코하마교회,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장)가 담당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래퍼 ‘후니/곽정훈’ 씨의 랩 공연도 진행되었으며, 재일 3세로서의 중언과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 문제에 대해 랩으로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성명문」 낭독이 있었으며, 이 사회에서 「표적」이 되어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믿으며, 모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중언하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강력히 호소하였다.



신도위원회 주최 행사 보고 (7월~9월)

1. 청년주일 기념예배 & 교제회가 은혜롭게 진행된다

지난해 제정 70주년을 맞이한 청년주일을 올해에도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살리고자, 7월 13일 간사이 지방회에서 청년주일 기념예배 및 교류회(오사카교회)를 드렸다. 기념예배에는 102명이 참석하였고, 교류회에는 청년 50명을 포함한 70명이 함께 하여 큰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예배 중 히라노교회 청년회의 박력 있는 신앙과 장엄한 찬양은 모든 회중을 기쁨으로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교류회에서는 재일 한국인, 일본인, 주재하는 한국인, 베트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지속적인 만남과 간사이 지방 청년연합회(관련) 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2. 전국 청년세미나(온라인) 개최

전국청년회(전협)가 휴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청년수회나 수양회를 대체할 필요성에 따라 신도위원회가 청년들이 모여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믿는 마음과 살아가는 힘”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 온라인으로 김성태 목사(도쿄교회 부목사)를 강사로 하여 전국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당일에는 청년들을 포함해 40명이 시청·참여하였으며, 김성태 목사의 메시지와 더불어 도쿄교회 청년회의 보고, 그리고 그룹토의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교회 청년들의 만남과 연결”의 장을 마련하는 일과 “희망으로서의 신앙”을 키워가는 일의 필요성을 나누었으며, 청

년과 더불어 목사·장로·신도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3. 전국 청년세미나(대면) 전국 두 곳에서 실시!!

8월 온라인 세미나에 이어, 대면으로 진행된 전국 청년세미나가 9월 14일에는 동일본(도쿄교회), 21일에는 서일본(오사카교회) 두 곳에서 개최되었다. 동일본(담당: 김성태 목사)에서는 관동지방 청년 11명이 모여 청년회 활동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며, 관동지방 청년연합회(관동련)의 재건이 화제가 되었고 앞으로 느슨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야기가 나누어졌다.

또한 9월 21일 서일본에서는 양양일 장로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생애를 귀히 여기며 체험하는 이완(Relaxation)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은 22명이 참여하였는데, 서부 지방에서도 청년이 함께 하여 간사이와 서부의 벽을 넘어 즐겁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4. 맷음말

이러한 청년 양육과 청년회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도위원회의 수고는 때로는 한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멈추기도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각 지방·교회에 속한 청년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은 미래 교회의 성장을 위한 큰 씨앗 뿌리기라 굳게 믿는다. 다시 한 번 전국 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보고 : 양양일 신도위원장)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2년 그리스도인 추도 기도회 성명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관동대지진 학살 102년을 맞이하여,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관동 지역 전역에서 학살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 학살은, 1910년 한국 강제 병합 이전부터 일본군이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 운동을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전멸’ 살육했으며, 또한 3·1 독립 만세 운동(1919년)을 ‘불량 조선인/不逞鮮人(불순분자)’ 폭동으로 규정해 군대와 관현이 7,000명 이상의 민중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탄압한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동대지진 학살은 대지진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을 계기로 ‘불량 조선인 폭동’을 이유로 천황의 칙령에 따른 계엄령 발포(9월2일 정오)를 계기로 계엄군과 관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재향 군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경단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5엔 50전(十五円五十五銭)”이라고 말하게 하여, 턱음(蜀音)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조선인을 가려내어 체포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그 학살로부터 102년이 지난 올해, 지난 7월 20일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 제27회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 각 당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마치 10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재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선거 연설을 빌미로 한 혐오 연설(Hate Speech)이 일본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또한, 혐오(Hate)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주변에 모인 군중으로부터 박수가 터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인 우선’을 내세우는 정당이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우대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무근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의심과 적대감이 부추겨지고, 그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국회 의석이 증가하는 현실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2023년과 2024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연속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개정에서는 극히 낮은 난민 인정률에, 3회차 이후의 난민 신청시에는 신청 중이라도 강제 송환 대상이 되며, 송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송환 회피자’라는 죄명으로 ‘범죄자’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4년의 개정에서는 영주자의 영주 자격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국인 주민을 ‘불법’ 이민이라 부르며 ‘위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외국인 배제와 배척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외국인 배척 선동이 일반 사회의 외국인 배척을 유도해 혐오를 일으키는 구조는, 102년 전에 정부에 의한 ‘불량 조선인’이라는 인상 조작에 따라 지진 이후의 학살이 발생했던 구조와 겹칩니다. 우리는 지금 학살의 직전 단계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전 세계 곳곳에서 배외주의를 내세우는 단체들이 등

장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사회에서도 배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다수파와 다른 문화·습관·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억압은 사회적 소수자만의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배외주의가 시민 사회 전체를 침식할 때, 사회는 급속히 파시즘(fascism)화되어 전쟁으로 치닫게 되며, 결국 멀지 않아 붕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근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인권 조약은 배외주의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갖추도록 해당 비준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이 의무와 책임에 아직도 응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가두 연설을 둘러싼 군중들 속에서, “15엔 50전이라고 말해봐”라는 102년 전의 학살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야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혐오를 부추기는 중심 연설과, 그것을 부추기듯 둘러싼 군중의 모습은 102년 전에 종과 일본도, 낫으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계엄군, 관현, 자경단원이라는 폭력의 중심을, 군중이 부추기며 둘러싼 학살 현장의 풍경과 겹칩니다.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의 바깥 쪽에는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폭정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등을 돌리며 묵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폭정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 세 번이나 “그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한 베드로를 떠올리며, 102년 전(※주)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파송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면서, 현재 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배척 주의에 말과 행동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회에서 ‘표적’이 되어 희생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중언하며,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30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2년
그리스도인 추도 기도회

(※주) 1923년 11월에 당시 개신교 각 교파가 연합하여 구성한 일본 기독교 연맹의 창립 총회 자료에는 그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언급이나 추모 기도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각 교회도 그 학살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는 일본 기독교 역사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
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
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
5千円です。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ています。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誦文・十戒
集録(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